

마른 여자들 Thin Girls

2025.9.10-9.28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아트센터는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박주영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2008-2025)

- | | |
|--|---|
| 이경현(극작가)
본주(작·연출가) |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죽음과 소녀〉〈오셀로〉 |
| 강동훈(극작가)
〈도그 워커의 사랑〉 | |
| 박주영(작·연출가)
〈마른 여자들〉 |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
| 배해륜(극작가)
〈시차〉 |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
| 신진호(연출가)
〈애도의 방식〉 |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
〈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 |
| 강현주(작·연출가)
〈잘못된 성장의 사례〉 | 〈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폭스파인더〉 |
| 진해정(작·연출가)
〈러브 앤 인포메이션〉 | |
| 진주(극작가)
〈클래스〉 |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깃븐우리절문날〉 |
|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사천가〉 |
|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
|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아갈리아의 딸들〉 | |
|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 |
|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 |



이경현(극작가)
Lee, Kyeong Heon
Playwright



본주(작·연출가)
Bonjoo
Playwright · Director



강동훈(극작가)
Kang, Dong Hoon
Playwright



박주영(작·연출가)
Park, Ju Young
Playwright · Director



배해륜(극작가)
Bae, Hae-youl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 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a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
(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잊혀진 존재들의 흔적을 찾아
연극으로 기록하는 이야기꾼
박주영

배선애(연극평론가)

이 글은 연극인 박주영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는 글이다. 어떤 키워드로 박주영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 결과가 이 글의 제목이다. 여기서 ‘잊혀진 존재들’은 박주영 작업에서 반드시 전제되는 상수항이고, ‘연극’, ‘기록’, ‘이야기꾼’은 박주영을 설명하는 개별적인 키워드들이다.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연극인 박주영을 고찰하려 하는데, 순서는 박주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키워드 순으로 정렬했다. 박주영의 모든 작품을 관극했다면 더 많은 설명이 가능했겠지만 아쉽게도 초기작은 관극하지 못했기에 2022년 이후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고고학적 ‘기록’

박주영은 작가 겸 연출가다. 작가로서 돋보이는 태도는 바로 ‘기록’이다. 잊혀진 존재들이 상수항으로 놓였기 때문에 기록의 대상은 그 존재들이다. 박주영의 기록은 고고학적 탐색과 꼼꼼한 관찰을 기본으로 한다. 한때, 혹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역사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체를 재구성한다. 공교롭게도, 아니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존재들이 모두 여성들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재발견이자 기록인 셈이다.

박주영에게 작가와 연출가로서 관객들에게 선명한 각인을 남긴 작품은 <영자씨의 시발택시>(2022)다. 이 작품은 이른바 1세대

여성 택시 운전사, 더 정확히는 박주영의 외할머니 최영자씨를 모티브로 삼았다. 택시 운전사는 성별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실상 여성 운전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운전 자체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기던 관습이 꽤나 견고했던 1960년대, 택시를 운전하는 여성들은 그야말로 별스러웠고 특별한 존재들이었다. 갖가지 사회적 편견을 일상으로 느끼며 일하는 직업이었지만 여성 운전사들의 유대와 연대는 그만큼 끈끈했다. 작가로서 박주영은 외할머니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당시 여성 운전사들의 삶을 재구성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록했다. 제목을 입은 여성 운전사,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운전사, 가장의 역할을 짊어졌으면서도 유쾌했던 여성 운전사. 과거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이 현재로 살아나 자신의 목소리를 큰소리로 관객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박주영의 기록이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가족인 외할머니에서 출발했지만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당시의 여성들을 기록함으로써 비워졌던 혹은 지워졌던 한 페이지가 빠곡하게 채워졌다. 그 덕분에 1960년대 택시를 몰던 여성 운전사들이 있었다는 발견은 마치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뼈대를 처음 봤을 때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박주영의 기록이 빛을 발한 것은 <고쳐서 나가는 곳>(2023)으로,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는 일명 ‘강강이 아지매’들이



연극 <영자씨의 시발택시>(2022)

주인공이다. 거대한 선박 겉면에 녹이 슬거나 조개껍데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망치와 사포(𠵿𠵿)로 제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강강 소리를 내며 일하는 여성들이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그것도 임시설치물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박주영은 작가의 시선으로 면밀히 탐색했고 제대로 살려냈다. 강강이 아지매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같은 조선소 안에서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같은 일을 하는 동료애는 깊고, 고된 노동을 달래는 유쾌함도 가지고 있다. 이 아지매들이 더욱 매력적인 것은 선박만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고쳐내는 것이다.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인천에서 부산까지 내려온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호해주고 지켜내는 것까지 흔쾌히, 그리고 즐겁게 수행했다. 녹록지 않은 삶이고 쉽지 않은 직업임에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타인까지 보듬는 아지매들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뒤에 딱하고 서 있는 든든한 언니들처럼 자연스러운 연대감이 든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 그러나 기록되지 않았고 기억되지 않았던 존재들. 박주영의 기록은 이렇게 존재했으나 흔적이 없는 여성들을 추적하고 탐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직업을, 그들의 고민들을, 그들의 총체적인 삶을 무대 위에 구현해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영자씨, 강강이 아지매 반장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언니들이라는 기분 좋은 발견은 박주영의 기록 덕분이다.



연극 <고쳐서 나가는 곳>(2023)

채워지지 않은, 아예 페이지가 없었던 존재에 대한 고고학적인 탐색은 작가로서 박주영의 정체성이자 지속적인 과제가 된 듯한데, 그만큼 탐색의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맛깔나는 ‘이야기꾼’

박주영은 이야기꾼이다. 하고 싶은 말을 아주 맛깔나게 지어내 전달하는 것이 어쩌면 조선시대 전기수와 닮았다. 실상 박주영이 관심 갖는 대상이나 지향하는 바는 연극계의 가장 핫한 이슈들이다. 젠더, 노동, 연대 등 많은 연극인들이 이 이슈로 작품을 창작하고 많은 관객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기도 하고, 이것이 옳다는 당위를 강요하기도 한다. 공감대의 확장보다는 이슈 자체로 눈길을 끄는 작업이 많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선명하게 직설로 발화하고 있어 이슈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박주영이 빛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맛깔나게 이야기를 꾸며내어 흠뻑 작품 속에 빠져들게 하여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박주영 특유의 이야기꾼 화법에 있다.

<감나무 멸망전>(2023), <다락방의 미친 여자>(2023)는 모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앞서 기록하는 박주영의 작품들 역시 고고학적 태도로 과거의 존재들을 현재화하고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찾아낸 자료들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것일 텐데 박주영은 탐색의 자료들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버무려 무대 위에 살아있는 인물들을 창조해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작품 또한 여성의 이야기이지만 여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사랑스러운 인물을 통해 연대와 공감에 더 적극적으로 와닿는다.

<감나무 멸망전>은 초등, 중등, 고등의 세

여학생이 학교 뒷산에 있는 감나무 아래에서 우연히 만나 가장 맛있는 감을 따는 좌충우돌 이야기다. 복잡하지 않은 서사지만 세 인물을 통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해가 간접적으로 투사된다. 최고의 감을 위해서는 서로 갈등하지만 결국 모든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버린 후 세 인물은 서로를 토닥이며 뒷산을 내려간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결의 페미니즘이 내재화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대하는 것, 서로에게 공감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껏 사랑스러운 세 인물로 전달하고 있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는 산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가 함께 쓴 동명의 저서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이다. 산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의 『다락방의 미친 여자』는 서양 문학사에서 여성의 글쓰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대표 작가들을 통해 살펴보는 저서다. 글 쓰는 여자-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자-를 미친 여자로 치부했던 인류의 역사. 문학과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교과서처럼 탐독하는 책이다. 박주영은 이 책에서 말하는 ‘미친 여자’에 주목했고, 자신만의 상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냈다. 집이 내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보통의 상식이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의 이야기다. 미친 여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관습과 시선, 가치관을 들춰내는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여자는 몰입보다는 끊임없는 관찰의 대상이다. 관객들은 여자의 행동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결국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신과 자신의 고정관념을 발견하게 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박주영의 작업은 모두 이야기다. 자신이 열심히 찾아낸 자료들을 나열하거나 말하고 싶은 것을 직설로 쏟아내는 대신 인물을 창조하고 갈등을 만들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다.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대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 그래서 그 앞에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꾼. 박주영의 가장 큰 장점이다.

너무나 ‘연극’적인 연출

박주영은 작가이면서도 연출가다. ‘연극으로’의 키워드는 연출가로서의 박주영을 설명하는 단서다. 작가로서 창작한 작품들은 대체로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무대가 연극적인 성격이 강한 편은 아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무대에 우뚝 서있거나(〈감나무 멸망전〉), 임시설치물이 벽면에 채워진 무대(〈고쳐서 나가는 곳〉) 등 한 번 고정된 무대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데, 본인이 창작한 작품이 아닌 다른 작가의 작품들을 연출할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연출로서 연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펼쳐내는 양상이다.

캐나다 작가 미셸 트랑블레의 〈매달린 집〉(2024)은 지금까지 박주영 연출의 작업 중

유일한 번역극일 것이다.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데, 계속 넘나드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연출적으로 매우 어려운 숙제에 해당한다. 박주영 연출은 무대 원편에 문을 세웠고, 그 문을 통해 집-가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시간의 교차를 자유롭게 표현해냈다. 복잡하거나 거대한 무대 장치가 아니어도 충분히 작품의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작품보다 더 연극성을 강하게 보여준 것은 서동민 작가의 〈연차대전〉(2024)이다. 해화동1번지 동인페스티벌 ‘장르’에서 무협으로 참가한 〈연차대전〉은 연차를 놓고 혈투를 벌이는 직장인들의 이야기다. 무협이라는 장르적 특징이 중심이기에 무협의 여러 관습과 문법들이 무대 위에 구현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작품이다. 더군다나 무협은 남성적 장르로 인식되어 온 젠더적 관습 때문에 박주영 연출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을 터인데, 실제 무대 위에서는 한 편의 무협액션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무대장치는 최소화하면서 무대의 모든 공간을 활용하여 무협의 움직임을 구현했고, 직장인의 평범한 출근복 속에 무협의 계파를 상징하는 의상을 입혀 자연스레 무협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권법을 활용하는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 전통의 무협과 현대의 공간이 하나가 되었으며, 갈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인물의 고독한 몸짓은 강호의 절대 고수를 표현한 듯했다.

연출가로서 박주영은 작품에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배우들의 도움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무대 활용에서 돋보이는 연극성에 대한 탐구는 연출가로서의 박주영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잊혀진 존재들, 목소리가 없었던 존재들에 대해 연극으로 기록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로 들려주는 박주영이 이번에는 소설을 각색한 〈마른 여자들〉을 선보인다. 여성에 대해, 여성의 몸체에 대해, 그리고 정체성과 욕망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을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다. 기록하는 이야기꾼이기에 소설 속 인물들을 무대 위에 제대로 불러낼 것이고, 연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출가이기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안하면서 무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여성 서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박주영이 〈마른 여자들〉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줄지 기대가 큰데, 아마도 박주영은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연극 〈감나무 멸망전〉(2023)



연극 〈고쳐서 나가는 곳〉(2023)



연극 〈영자씨의 시발택시〉(2022)



박주영

DAC Artist

기지 작·연출가

해화동1번지 8기 동인

작·연출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감나무 멸망전><고쳐서 나가는 곳>
<영자씨의 시발택시><지하 6층 앨리스><깔깔 울었다!>
<국산좀비 : 더 비기닝> 외
연출 <연차대전><매달린 집><그곳이 멀지 않다> 외
작 <다락방의 미친여자>
각색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수상 2023 제60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고쳐서 나가는 곳>

연출 노트

나는 내 고양이가 죽은 후 3개월 동안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다. 다이어트를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몸은 점점 변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야, 살 빠졌다!”라고 인사했다. 아무도 우리의 몸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나조차도 그랬다. 나는 먹고 토하는 내가, 그러면서도 살 빠진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내가, 혐오스럽고 무서웠다. 그런 나를 이해해야 했고, ‘마른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작품을 쓰면서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들을 이해해 보고 싶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자신을 망가뜨리면서도 멈추지 못할까? 쉽게 재단되고 조롱당하는 질문들 뒤에는, 사실 다른 언어로 말해지는 절실한 외침이 숨어 있었다. ‘마르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하게 미를 추구하려는 아둔한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존재를 확인 받고 싶다는 간절한 몸부림일지도 모른다.

섭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 파괴적’이라는 말로 규정된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증명이다. 먹지 않는 행위는, 0(제로) 상태로 있겠다는 선택은, 단순히 사라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방법이다. 세상은 그 언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 언어로 연극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마른 여자들>을 만드는 동안 나는 내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시 물었다. 나는 왜 멈추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는지. 로즈와 마른 여자들의 눈동자를 따라가다 보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여자들이 조금은 이해되었고 동시에 그때의 나도 토닥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연극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매번 사람들을 만나고,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곤 한다. 극장에 모이게 될 모든 분들이 무대 위의 마른 여자들의 눈을 제대로 보아주시길. 그런 다음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살아낼 수 있길 바라며.

“나는 확인하고 싶다. 매일 조금씩 내가 없어지는 걸.”

거식증 환자를 위한 시설에 있는 로즈. 그는 이곳에서 삶을 유보하고 있다. 시설에서 만난 마른 여자들은 나이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로즈와 꼭 같은 사람들이다. 거울이 없는 이곳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로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 이곳의 여자들은 함께 마르고, 함께 죽어가고 있다. 로즈는 몸무게가 더 늘지도 줄지도 않는 ‘0’(제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면 바라는 것이 없다. 로즈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 뿐이다.

그렇게 애써 멈춰 두었던 로즈의 세상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마른 여자들의 눈 속에서, 어두운 밤 검은 유리창 너머에서, 밤마다 밀려오는 기억 속에서, 자신의 쌍둥이 언니의 몸에서. 더 이상 못 본체 할 수 없는 삶과 욕망이 밀려와 로즈를 흔들고 뒤엎는다. 이제 로즈는 다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놓아야만 한다. 로즈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마침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가 이긴다
(In the End, the One Who has Nothing Wins)*

박지니(『삼키기 연습』 저자·잠수함토키콜렉티브 활동가)

* 루이즈 글릭(Louise Glück)의 시
『과부들(Widows)』에서

처음 연락이 닿았을 때, 박주영 연출가가 카톡으로 건넨 자료는 다름아닌
둘 중 한 사람만 섭식장애를 앓는 쌍둥이 자매들에 관한 논문이었다.
연극의 원작 『마른 여자들 Thin Girls』의 주인공 로즈와 릴리가 쌍둥이로
그러져 있고 그건 우연한 모티프가 아닐 텐데도, 거식증이 매개한
가까운 사람들 간의 ‘텔레파시 싸움’에서 관심이 너무 오래 멀어져 있던
나는 그 점을 거의 놓칠 뻔했다. 20여 년 전 내가 입원했던 병원에도
쌍둥이였던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나는 대본 리딩을 마친 배우들과 한창
얘기를 하던 중에야 상기해낼 수 있었다.

나와 두 살 터울인 여동생과는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너희 쌍둥이니?’라는
질문을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고, 나는 외박을 했고 동생은 아빠와
편박이었음에도 쌍둥이 같았다는 건 말없고 소심한 두 어린 소녀의 개성이
몽개 졌었던 뜻일지도 모른다. 두 살 더 머리가 컸던 나는 모든 환상과
모의의 기획자였지만, 사춘기를 지나며 상황은 우스꽝스럽게 역전되었다.
피아노학원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했었지만,
연주로 뭔가 표현하고 싶어 했으나 악보를 외지는 못했던 나와는 달리
동생은 모든 음표를 팡팡 내리치며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었다.
정말로 어려운 책을 떼고 싶어 했던 나는 되려 책 읽는 속도가 더더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거식증에 더해 기면증의 충공세를 받았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만’ 한다는 자기 제약이 전혀 없던 동생은 고등학생이
돼서까지도 거실에 아무렇게나 누운 채로 단테의 〈신곡〉을 폭 빠져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삼키기 연습』에서 ‘텔레파시’에 대해 썼다. 어머니와 나와 여동생은
꽤 오랫동안 어떤 자기장 같은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처럼
지내왔다. 지금도 나는 그 문법을 알고 가장 대표적인 화용법의 예를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시도해
보자. 아침부터 하늘이 꾸물꾸물하고 딱 비가 오게 생겼다. 하지만 세 사람
중 먼저 ‘우산’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은 루저가 될 것이고,
이 규칙은 나와 내 동생만이 알고 있다. 게다가 우리 둘이 이를 팽팽히
의식하고 있는 순간에 어머니가 우산을 챙겨 가라고 말한다면, 여기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루저다. 그리고 루저란 어머니의 허기와 욕망을 한 순간에
다 삼켜버린 거대한 비겟덩어리이자 쓰레기통이다.

마흔다섯 살인 지금의 나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졌다.

단순히 내가 ‘나아져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텔레파시에 의존했던
상황을 벗어났다고 하는 건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고작 8년 전, 나는
비가 쏟아지는 강남 한복판에서 광고주의 전혀 상상치 못한 클레임을
전화로 들으며 우산 속에서 대꾸 하나 못하고 들이치는 비에 훌쩍 젖고만
있었다. 마침 상담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던 나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 얘기를 들으신 선생님은 사이코드라마의 ‘빈 의자 기법’을 응용해
빛속에서의 그 처참한 일방적 대화를 나와 함께 재구성하길 시도하셨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놀라운 것은 당시 나는 하고 싶은 말을 ‘꼭 참고
못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대꾸가 가능했는지 자체를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내게는 ‘언어가 없었다’.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광고주와 동등한 성인도,
시민도 아니었다. 사이코드라마였다라면 내가 스스로 떠올려내야 했을
‘그때 하지 못했던’ 대사를, 선생님은 내게 전부 귀뜸해 주셔야 했고, 나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섭식장애는, 언어가 부재한 곳에 소환된다.

섭식장애를 연구하는 미국 역사학자 앨리스 웨인렐(Alice Weinreb)은
얼마 전 웨비나에서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기억과 20세기
섭식장애의 역사가 미묘하게 겹쳐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독일 출신
유대인 의사들과 더불어 섭식장애 베테랑 연구자 중 꽤 많은 수를 차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중 한 사람인
세계적 가족기반치료 전문가 대니얼 르그랜지(Daniel Le Grange)는
자신이 섭식장애에 관심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그가 수련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병원은 여자 환자와 남자 환자
입원병동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자 환자 입원병동을 가득 채운 폭력적인
흑인들을 대하는 것보다 여자 환자 병동에 숨 죽인 채 죽어가고 있는
섭식장애 환자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덜 두려웠고 마음 내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열 살부터 서른셋에 숨을 거두기까지 음식을 거부한 노르웨이의 사진작가
레네 마리 포센(Lene Marie Fossen)은 거식증으로 피폐해진 자신의
자화상으로 알려졌고, 한때 에게해 키오스섬 난민 캠프에 발이 묶인
시리아 아이들의 모습을 흑백사진 속에 담았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점령한
거식증을 마치 ‘내 몸에 기생하는 나치 정권’ 같다고 표현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Simone Weil)는 나치 점령 하의 프랑스 시민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자신 역시 먹을 수 없다며 섭식을 거부했다. 루이즈 글릭은,
대학 진학마저 포기하게 한 거식증과 싸우며 “정신분석을 받았던 그
7년간, 때때로 나는 의사에게 저 고리타분한 비난을 돌렸다. 그가 나를 너무

건강하게, 너무 온전하게 만들어버려서, 나는 다시 쓸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나를 침묵시켰다. 그는 말했다, 세상이 네게 충분한 슬픔을 주리라고.”

우리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세상의 슬픔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가자로 향하는 자유 구호선은 나포되지만 다시 출항에 나서고, 거식증을 이겨내고 이제 성인이 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이 억센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며 갖가지 전략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언제나, 가자로 다시 출발할 것이다.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매해 2월 말 개최하는 ‘섭식장애 인식주간(EDAW)’은 섭식장애를 경험한 이들의 말과 섭식장애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 정신의학이 정통우위를 갖지 않는 - 말을 위한 행사다. 그 7일을 움직이는 기계장치는 선의와, 현실 속 온갖 거래의 생리와, 초대받지 않은 자의식 속에서 침범이며 가동된다.

올 초 세 번째 섭식장애 인식주간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가는 게 더 난이도 높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비구니로 출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세에서 수련하는 게 더 예술적인 것처럼요.” 그리고 속세는 우리를 예술적으로 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이세영

로즈 역

연극 <납과 복숭아><짬뽕><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멸망의 로맨스><이번 작업은 좀 열어두기로 하죠>
<비행을 위한> 외
가족극 <뭉든지 텃밭>
드라마 <정년이>
수상 2023 제44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추락 II>



황미영
릴리 역



김유민
제나 역

연극 <지금이야, 정애씨!><거의 인간><햄릿>
<아들에게>(부제: 미옥 엘리스 현)<고쳐서 나가는 곳> 외
영화 <분리수거> 외



김별
로런 역

연극 <한치백><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
<풀><햄릿><아란의 욕조><웰킨><작가><로테르담>
<영지> 외
드라마 <용감무쌍 용수정> 외
영화 <경미의 세계><영미><코알라> 외



임윤진
캣 역

연극 <물타의 유대인><고쳐서 나가는 곳><감나무 멸망전>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사탄동맹>
<영자씨의 시발택시><밤의 사막 너머><1986 임윤진>
<아랫것들의 위><굴목길 느와르-리처드 3세를 찾아서>
<지하철존재론-춤추듯 춤추지않는><멀티센스><거의
엘렉트라><내가장롱롱메롱문열었을때><떠도는 땅> 외
영화 <항거><타투> 외
수상 2018 제8회 PADAF 페스티벌 최우수 연기상



조어진
캐 역

연극 <♥우정테스트♥><일상관객매뉴얼><헤다 가블러>
<눈 가리고 아웅><인 마이 베드In My Bed>
<지상의 여자들><아이들><고목><키리에> 외



정제이
세라 역

연극 <수성다방><연차대전><감나무 멸망전>
<고쳐서 나가는 곳><극장밑고 천국가세요>
<영자씨의 시발택시><뽕이오 뽕><지하 6층 앨리스>
<그 곳이 멀지 않다><악어시><결혼><국산좀비>
<졸업> 외
영화 <레슨 중><연기><반디> 외



최정화

캐서린·그레이스 역

연극 <지금이야 정애씨> <부대찌개> <82년생 김지영>
 <영자씨의 시발택시> <어느 날 갑자기> <말뚝의 눈물>
 <지금도 가슴 설렌다> <사랑해 엄마> <소년B가 사는 집>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외
 음악극 <비밀의 노래> <패스> 외
 드라마 <협상의 기술> <살롱 드 홈즈> <정년이> <지옥 시즌2>
 <남이 될 수 있을까> 외
 영화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파묘>
 <설계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외



김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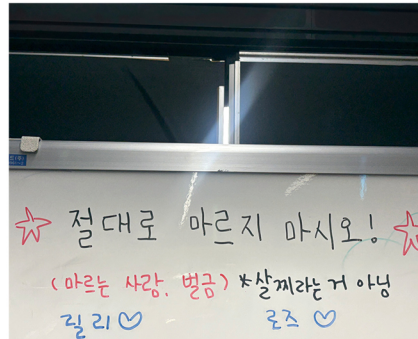
필·상담사·남자친구들 역

연극 <하늬> <동백당> <뽕집의 사람들>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조치원 새가 이르는 곳>
 <세븐틴> <환상회향> <외경> <세기의 사나이>
 <고래가 산다> 외
 드라마 <협상의 기술> <봄밤> 외
 영화 <서울의 봄> <요시찰> <보충수업> <60일의 썸머> 외

“절대로 마르지 마시오”

이 작품은 섭식장애를 앓는 인물들의 서사를 다룬다. 극 중 대사와 장면 속에서 “마른”, “빼만 남은”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언어가 주는 이미지가 실제 배우들의 신체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체중과 외모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이 공연예술 종사자에게서 비정상적인 체중 조절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특히 1) 극 속 인물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며 외모 압박을 느끼는 현상 2) 특정 체형에 대한 반복적 언급이 이상적 몸매로 각인되는 심리 3) 체중 감소를 ‘역할 몰입’의 일부로 착각하여 시도하는 위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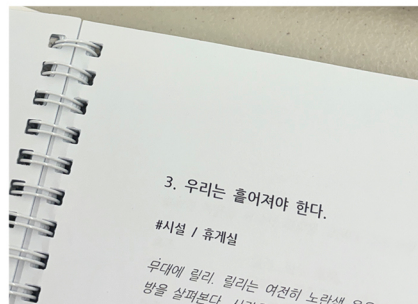
연습 시작 첫날, 박주영 연출은 “절대로 마르지 마시오”라는 원칙을 배우와 창작진에게 전달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이 건강한 무대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이 작업을 진행한다. “절대로 마르지 마시오!” 이 작품은 그저 ‘마른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에 대한 욕망과 압박 속에서 해방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흠어져야 한다” 라는 제목의 의미

작품의 한 소재목인 “우리는 흠어져야 한다”는 잠수함토키콜렉티브 대표이자 『삼키기 연습』의 저자인 박지니 작가의 섭식장애 인식주관, “우리는 최대한 흠어져야 한다”에서 영향을 받았다.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익숙한 구호와 달리, ‘흠어져야 한다’는 발상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러나 박지니 작가와 함께 진행한 워크숍에서 직접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힘든 세상에서 억지로 뭉쳐 버티기보다, 흠어져서 살 만한 곳을 만들고,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작품 속에서도 중요한 태도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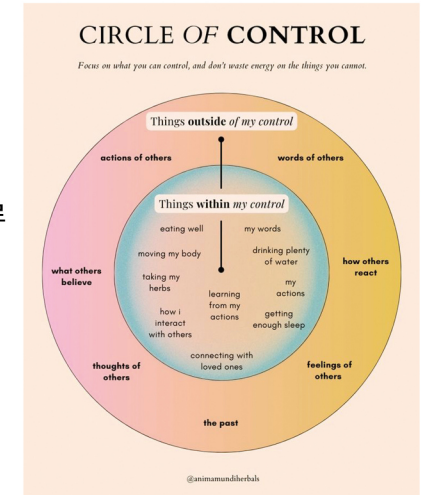


서로를 고립시키는 사회 구조와 싸우는 방법이 꼭 한데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안전한 섬’을 만드는 일일 수 있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통제의 원/물방울의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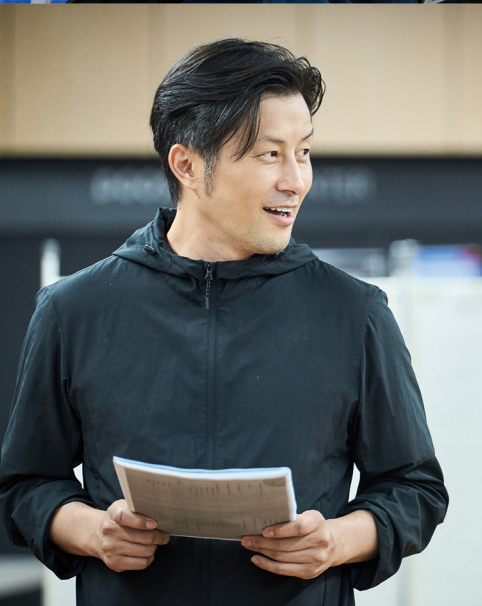
무대를 원형으로 떠올린 것은 단순한 형태적 선택이 아니라, 작품이 품고 있는 상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첫째, ‘통제의 원(Circle of Control)’의 개념이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동시에 마주하며 살아간다. 중심에 가까울수록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바깥으로 갈수록 나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 구조는 동심원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둘째,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파장의 이미지다. 한 점에서



시작된 울림이 원을 그리며 바깥으로 번져 나가듯, 인물의 감정과 관계도 중심에서부터 퍼져 나간다. 이 확장은 무대 위 원형 동선 속에서 시각적으로 체감된다. 셋째, 작품 속에 등장하는 ‘흰개미의 굴’이다. 흰개미의 둥근 굴과 그 안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통로들은, 고립과 연결, 중심과 외곽의 이미지를 동시에 품고 있다. 이는 통제의 원과 파장의 개념과 맞물려, 원형 무대의 기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원형은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여정을 담는 구조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다시 중심으로 오가는 모든 순간이, 관객에게 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세상과 부딪히고 확장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무대디자인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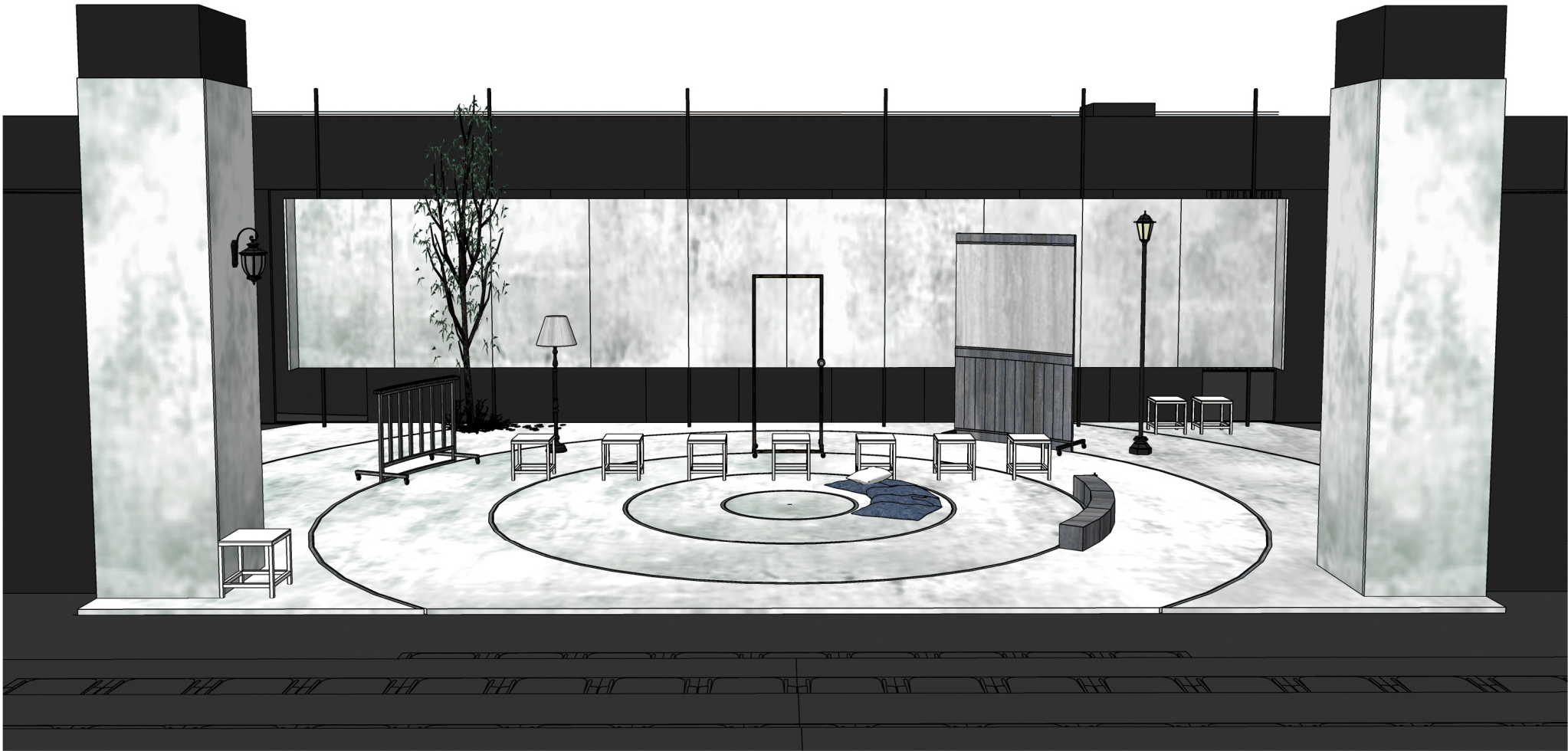
남경식
무대디자이너

연극 <마른 여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점은 너무나 명확했고, 연출적 메시지 또한 분명했다. 다만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긴 생각의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이다. 상징적 담백함, 일상적, 반복적, 규칙적, 존재감, 사라짐, 통제와 무질서, 공간적 겹침.

극 중 섭식장애를 가진 쌍둥이와 주변 인물들 각자의 내적갈등과 상처들이 연극적 표현 방식을 빌어 아주 담백하게 표현되기를 바랐다.

무대의 구조적 틀은 ‘원’에서 시작되었다. ‘원’과 더 큰 ‘원’, 그보다 더 큰 ‘원’, 그보다 더 큰. 인물들과 오브제, 모든 움직임의 방향성은 원의 방향성과 같이 정해져 있다. 인물들은 원에서 벗어나 각자의 방향을 가질 수 있을까.

공간의 담백함 위에 올려진 인물들의 서사가 함께 어울려서 연극 <마른 여자들>의 진짜 무대가 되어간다.



의상디자인 노트

이윤진

의상디자이너

〈마른 여자들〉에서 거식증 환자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실제로 마른 몸을 구현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 곳곳의 선들을 형상화해서 시설편에 그리는 표현주의적인 선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들 각자 자신의 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박적 생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확일화되고 편안한 시설편 속에서도 자기 몸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이 작품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상디자인 노트

LIMVERT

영상·음향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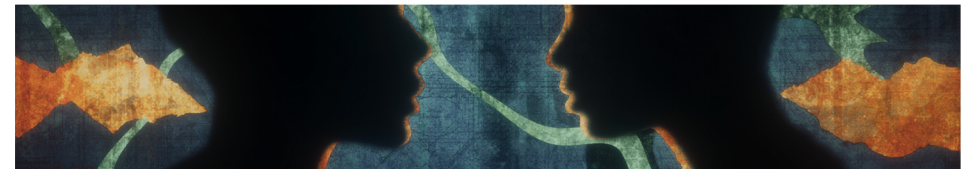
‘프랙탈(fractal)은 전체 속에 부분이, 부분 속에 다시 전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하학적 구조이다.’

〈마른 여자들〉속 인물들의 몸과 행동은 프랙탈과 같습니다. 쌍둥이의 관계, 집단의 움직임, 식사 의례가 끝없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 안에서 작은 차이가 쌓이며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무대 위 미디어는 그 반복과 균열을 시각화 합니다.

프로젝션 되는 미디어는 인물들의 내적 감각을 기록하는 시각적 기록자로 작동합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만드는 작은 행위를 패턴화 하여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듯, 관객들에게 인물들의 ‘안쪽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미디어는 프랙탈을 통해 극의 본질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마치 거울과 거울이 마주하여 거울 속의 자신이 끝없이 이어지듯, 몸과 몸, 시선과 시선, 욕망과 두려움은 서로를 비추어 확장됩니다.

미완의 구조, 불가능한 패턴이 남아 무대 위에 존재할 것입니다.



Unity of confrontation



A house of termites



Roses Rooms

하영미

안무가·배우

‘나와 같은 사람들. 서로의 눈을 보면 내가 보인다.’ 극 중 로즈의 대사이다. 로즈는 거울이 없는 시설에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여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교차된다. 겹쳐진 동그라미들 안에서 통제되고, 고립되고, 연결되는 그리고 같은 시간과 다른 시간에 함께하는 인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해야 시간성과 관계성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사무엘 베케트의 <쿼드>를 오마주 하여 원형의 공간 속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자들은 극 전반에 걸쳐 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뭉치고 흠어지기를 반복한다. 이완하기, 바라보기, 하나의 유기체처럼 걷고 멈추고 모이고 흠어지기, 상대의 호흡과 중심이동을 감각하기,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이기 등의 워크숍을 거쳐 서로를 지탱하지만, 서로를 파괴하기도 하기에 결국 흠어지고 새롭게 다시 만나야 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강박적 움직임에서 에어로빅으로

마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예전보다는 덜 하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과도한 다이어트 광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지만, 생각해 보면, 마르고 싶다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오래, 그리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왜 이런 생각이 내 몸에 박혀버린 건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 내가 거처온 환경에서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수많은 이미지와 말들. 그 흔적을 이미 익숙해져 대수롭지 않게 스쳤던 나의 생각과 행동에서 다시 인식한다. 마른 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 것, 유리창에 몸을 비춰 보는 것, 팔뚝을 만져보는 것 등 배우들과 함께 강박적 행동들을 리서치 했다. 우리들, 그리고 마른 여자들의 심리상태가 발현되는 움직임, 이 움직임들은 극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마지막에 Cindy Lauper's Girls just wanna have fun에 나열된다. 강박적 행동은 춤이 되고, 이 춤은 그레이스의 에어로빅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기, 조금씩 바뀌어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극을 맺는 시점에 담아내고 싶었다.



DAC Artist 박주영 마른 여자들 Thin Girls	2025.9.10-9.28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조명디자인 김지우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원작 다이애나 클라크(Diana Clarke) 소설 『Thin Girls』 (HarperCollins, 2020) 소설 『마른 여자들』 ((주)창비, 2021, 번역 변용란)	조명어시스턴트·프로그래머 김현	분장팀 홍주미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강하람 이윤서 이예인	하우스 안내원 김예지 이준(헤드 어시스턴트 매니저) 권도이 권현수 기나연 김나연 김경미 김상윤 김수빈 김하나 남연수 남혜민 송해원 신아영 양서은 이승규 이승훈 이예진 이채민 이하은 이현지 임소은 조수빈 차승준 하수영
각색·연출 박주영	조명오퍼레이터 박채린	소품팀 박진아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조연출 김서휘	조명팀 박진희 배연진 엄지혜 이상민 이예진 이현동 이현직 임민영 임혜성 전의준 정찬영 정채림 한상우	워크숍 진행 박지니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박지희 김지영	기술총괄 황동철	
출연 김별 김승환 김유민 이세영 임윤진 정제이 조어진 최정화 황미영	안무 하영미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티켓 이연서 김지은	음향 신승욱 류호성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영주	음악 정현정	사진(포스터·프로필·설정) 정희승 스튜디오(대표 정희승)	사무 유은우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수민	
무대디자인 남경식	영상디자인·제작 LIMVERT(임정은)	사진(연습·공연) 서울사진관(대표 김호근)		무대 강현후 박소연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_TAGe, 대표 이윤중)	음향디자인·시스템디자인 LIMVERT(임정은)	영상(공연 실험)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제작팀장 김세진	음향작업 백상길	SNS콘텐츠제작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제작팀 김용선 임대환 정재현 박호준 이승윤 박경준 이준혁	영상·음향장비 임차 앨리스 스튜디오 프로젝트 (대표 방지현)	인쇄 으뜸프로세스			
작화팀 작화공간(대표 이남련)	의상디자인 이윤진				
작화팀 이재형 박지원 채근주 이주은	의상제작 웃장				

두산아트센터는 원작자 다이애나 클라크(Diana Clarke), 한국 출판권자 (주)창비 및 변용란 번역가에게 원작 및 한글 출판본 소설 사용에 대해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그 워커의 사랑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강동훈

연출
송정안

드라마터그
김지혜

출연
조영규 윤현길 박옥출
윤경 최정우

화수목금 7시 30분
토일 3시 (월 공연없음)

가격
정가 35,000원
두산아트센터 회원
28,000원

문의·예매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NOL 티켓 1544-1555
nol.interpark.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2025.10.29-11.16
두산아트센터 Space111

DAC Artist
강동훈

두산아트센터 2025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고스트 베이커리** 2024.12.19-2025.2.23

뮤지컬 **라이카** 3.14-5.18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 6.3-9.14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5.10.30-2026.1.25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5

다원 **이태원 트랜스젠더-클럽 2F** 1.9-1.11

연극 **8월, 카메군과 모토야스 강을 건너 기록** 1.16-1.18

연극 **감정 연습** 1.23-1.25

뮤지컬 **달리, 갈라 기획전** 2.20-2.22

연극 **그리고 남겨진 것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길고 긴 사이 2.27-3.1

연극 **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3.6-3.8

연극 **물과 뼈의 시간** 3.13-3.15

연극 **변두리 소녀 마리의 자본론** 3.20-3.22

두산인문극장 2025: 지역 LOCAL

연극 **생추어리 시티 Sanctuary City** 4.22-5.10

연극 **엔들링스 Endlings** 5.20-6.7

뮤지컬 **광장시장** 6.17-7.5

공동기획

극단 작은방 | 연극 **견고딕걸** 3.29-4.13

글과무대 | 연극 **변아웃에 관한 농담** 7.19-8.3

DAC Artist

박주영 | 연극 **마른 여자들** 9.10-9.28

강동훈 | 연극 **도그 워커의 사랑** 10.29-11.16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이오진 | 연극 **히스테리 앵자이더티 춤추는 할머니** 11.26-12.14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5 1.22-3.8

노혜리 개인전 4.2-5.1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Ringing Saga 6.4-7.12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기획전: 녹색 섬광 8.6-9.13

두산갤러리 기획전 10.22-12.13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8-2.17, 7.3-8.9

두산아트스쿨: 미술 4.3-4.24, 11.4-11.25

두산인문극장: 강연 4.7-6.30

두산아트스쿨: 리서치 4.14-8.25

두산아트스쿨: 공연 8.11-8.14

두산아트센터 투어 10.16-10.17

Studio DAC 프로그램 4.-12.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6-1.23

두산아트랩 공연 5.7-6.4

공동기획 6.9-7.9

시각 예술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6-1.19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1-5.4

두산아트랩 전시 6.2-6.14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